

Daily Auto Check

2020. 9.4(Fri)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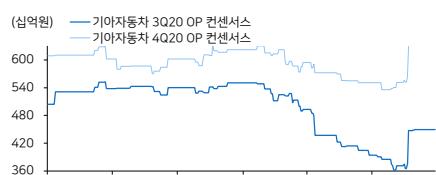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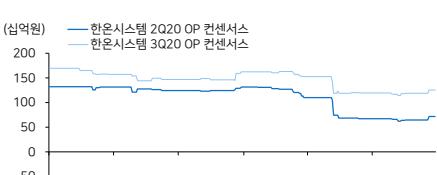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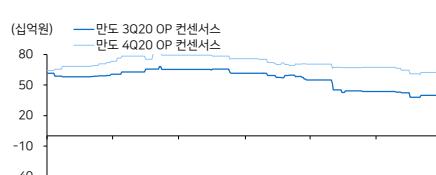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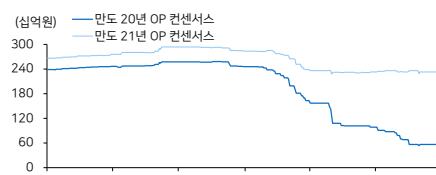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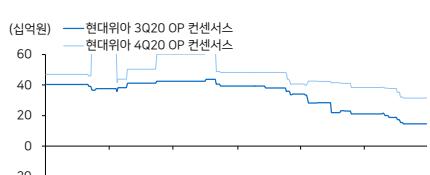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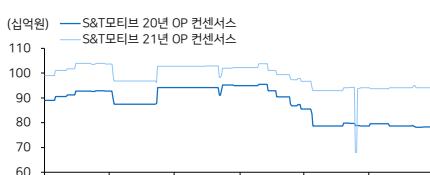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알버트 비어만 현대차 사장, 유럽 수소전기차 시장 전략 소개 (전자신문)

현대차는 올해 'IFA 2020'에 처음 참가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등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소개. 먼저 알버트 비어만 현대차 연구개발본부장이 'IFA 2020'를 통해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유럽 시장 전략을 공개.
<https://bit.ly/32OrDCs>

HB20-릴루라이드... 현대-기아차, 해외시장 진출 모델 질주 (동아닷컴)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해외시장에만 내놓은 전용 모델들이 코로나19 불황 속에서 신전하고 있음. "우리 눈이 아니라 현지 고객의 눈으로 보라"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옴.
<https://bit.ly/3lMoqv0>

차량 가격 55% 유예 할부... 기아차 E-Save 할부프로그램 (뉴스원)

기아자동차가 전기차 구매에 적용되는 E-Save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 E-Save에는 차량 가격 일부 유예, 초기금리 적용, 충전비 지원 등이 담김. 이 프로그램으로 이달 담보 EV 및 콜레kt EV를 구매하면 최대 55%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https://bit.ly/32Z9nGV>

SKT·현대차·카카오, 양자암호·자율주행차 보안 등 국제표준 채택 (이데일리)

SK텔레콤,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정보통신 보안 관련 국제 표준을 신도하게 됨. 현대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카카오모빌리티, 고려대, 등이 함께한 자율주행차 보안 표준이 총 2건이 채택됨.
<https://bit.ly/3brjsj5>

현대차, 4세대 투싼 이미지 첫 공개 (조선비즈)

현대차는 9월 출시 예정인 준중형 SUV 투싼의 이미지를 3일 처음으로 공개. 이상업 현대차 디자인센터장(전무)은 "신형 투싼은 현대차의 도전적이고 대담한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SUV가 될 것"이라고 말함.
<https://bit.ly/3KoYkh>

현대차·기아차에 '유럽·미국 시장'의 의미는? (이코노믹리뷰)

매월 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양사의 미국, 유럽 등 두 지역 실적을 분석·평가하는 내용의 국내 보도가 쏟아짐. 양사가 전세계 시장 가운데 해당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실적의 비중이 비교적 크기 때문.
<https://bit.ly/354R2ec>

현대·기아차가 국산 타이어를 안 쓴다고요?.타이어업계의 항변 (이데일리)

현대차가 올해 내놓은 신차 7종 중 6종 수입 타이어 사용하면서 국산 타이어 업체들이 송곳이를 하고 있음. 타이어업계는 현대차가 "내수는 수입산, 해외판매용은 국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품질이 수입산에 뒤지지 않는다고 항변.
<https://bit.ly/3lQcO1>

글로벌 자동차 판매 회복세... 7월 주요국 내수 감소폭 완화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미주, 유럽, 아시아 지역 모두 올해 7월 자동차 판매량의 약半 동월 대비 감소세가 둔화됨.
<https://bit.ly/352IPf6>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